

# 『韓國建築調查報告』에 보이는 關野 貞의 韓國建築觀

中西 章

(東京工業大學附屬工業高等學校 教諭)

주제어 : 關野 貞, 한국건축조사, 건축관, 明治時代

## 1. 序

關野貞(세키노 다다시)의 『韓國建築調查報告』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한국건축 조사 및 연구이고, 근대적인 한국 건축사 연구의 효시가 된 저작이다. 이 조사와 연구는 선행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한국 건축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밝힌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또 『韓國建築調查報告』와 그 이후의 關野에 의한 한국 건축 연구는 이후의 일본인에 의한 한국건축사 연구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건축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이 『韓國建築調查報告』에 보이는 關野貞의 한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은 동시에 당시 일본인이 한국 및 한국 건축에 대해 어떤 이해와 평가를 가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關野의 韓國建築觀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바탕이 된 고건축 일반에 대한 그의 인식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는 큰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韓國建築調查報告』에 보이는 關野의 한국건축에 대한 인식에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논하기로 한다.

『韓國建築調查報告』에 관한 연구로서는 日本建築學會에서 편찬한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의 일본에서의 동양건축사 연구의 전개에 관한 논

고<sup>1)</sup>에서 언급되어져 있다. 그리고 西山 武彦은 복각된 『韓國建築調查報告』의 해설 중에서 그 내용을 평가하면서도 이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당시 일본에 의한 한국 침략과 그 후의 문화재 정책과의 관련을 추측하고 柳宗悅과 비교하여 關野의 한국건축에 대한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sup>2)</sup>. 또 韓三建은 關野의 한국 건축 조사에 관한 논고 중에서 『韓國建築調查報告』에 관하여 그 목적과 개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 그 조사를 일본의 한국 지배와 관련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韓國建築調查報告』를 대상으로 한 몇 개의 논고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關野의 한국건축에 대한 인식을 밝힐 시점에서 연구된 논고는 없다.

## 2. 關野 貞과 『韓國建築調查報告』

### 2-1. 關野 貞과 일본에 있어서의 건축사연구

일본에서의 건축사 연구는 明治26年(1893)에 발

1) 平井 聖 「東洋建築史の展開・明治期」(日本建築學會 編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昭和47年(1972)、丸善)

2) 西山 武彦 「『韓國建築調查報告』の謎」(西山 武彦・伊丹潤 監修 『韓國の建築と藝術—覆刻 韓國建築調查報告』 韓國の建築と藝術刊行會、1988年)

3) 韓三建、青井哲夫、布野修司 「1902年から1910年までの關野貞による韓國建築調査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1994年9月

표된 伊東 忠太의 「法隆寺建築論」<sup>4)</sup>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콘더(Josiah Conder)에 의한 서양건축사 강의나 木子 清敬에 의한 일본건축사에 대한 강의는 있었지만<sup>5)</sup> 본격적인 건축사 연구는 이 「法隆寺建築論」이 처음이다.

關野는 慶應3年(1867) 현재의 山形縣에서 태어났고 伊東보다 3年후인 明治28年(1895)에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하고 이듬해 12월에 기사로서 奈良縣에 부임했다. 奈良에서는 古社寺 조사를 맡아 약 350 동의 고건축을 조사하고 그 연대 판정과 건축사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리고 古社寺保存法을 위하여 보호해야 할 건축 목록을 작성, 약 80 동의 건축을 건축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로 5개의 등급으로 분리했다<sup>6)</sup>. 더욱 明治31年(1898)부터는 法起寺三重塔, 唐招提寺金堂, 藥師寺三重塔 등의 해체수리공사의 감독지도를 했고, 또 平城宮跡의 조사 연구도 했으며 明治34年(1901)에는 東京帝國大學 助教授에 취임했다.

이와 같이 關野는 伊東와 함께 일본에서의 건축사 연구 초기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그 학풍은 엄밀한 고증을 기초로 했고, 奈良에서 판정한 여러 건축의 연대는 정확하여 그 후의 연구에서도 큰 수정은 없었다고 평가되어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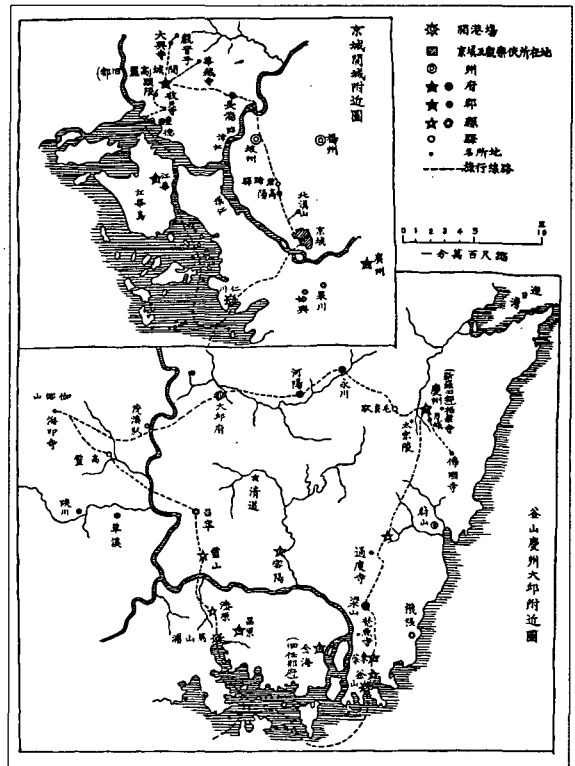
일본건축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함과 동시에 곧 그들의 관심은 동양건축으로 향했다. 즉 明治34年(1901)에는 伊東이 불과 1개월이지만 중국건축을 조사했고, 이듬해부터는 제2차 제3차의 중국건축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伊東의 제2차 중국건축 조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關野의 이 한국건축 조사도 행하여졌다<sup>8)</sup>.

그 후 伊東의 조사여행은 중국, 미얀마, 인도, 카시미르에서 터어키, 이집트 등지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졌다. 한편, 關野도 중국, 인도로 사찰여행은 했지만 그 조사연구의 중심은 한국건축의 조사연구에 있었고 1909년 이후에는 건축조사가 매년 한국각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성과는 후에 「朝鮮古蹟圖譜」, 「朝鮮美術史」 등으로서 刊行됐다<sup>9)</sup>.

이와 같이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동양건축사 조사연구는 일본건축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곧 시작되었다. 이들 동양건축사 연구의 주안은 일본건축과의 관계나 그 계통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伊東은 「法隆寺建築論」에서 이미 法隆寺 건축의 계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關野도 마찬가지로 일본건축과의 비교나 그 계통에 관심을 갖고 이 한국건축조사를 했다고 추정된다.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비교가 많이 보이는 점은 이런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후에 출판된 『朝鮮美術史』 등에서도 동양건축 계통에 맨 먼저 언급하고 있다.

2-2. 「韓國建築調查報告」에 대하여

序文에 의하면 關野는 明治35年(1902)6월에 한국건축 조사의 명을 받아 62일 동안 한국건축을 조사했다. 그 조사여행 경로는 지도로 표시되어져



[그림 1] 關野의 조사여행 경로  
(「韓國建築調查報告」)

4) 伊東 忠太 「法隆寺建築論」 建築雜誌 83、明治26年(1893)  
5) 稻垣 榮三 「建築史研究の發端—伊東忠太と關野貞」(日本建築學會 編 前掲書)  
6) 稻垣 榮三 前掲論文  
7) 太田 博太郎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國社、昭和58年(1983)  
8) 平井 聖 前掲論文

9) 「朝鮮古蹟圖譜」朝鮮總督府、大正4年(1915)~昭和10年(1935)  
關野 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昭和7年(1932)

[표 1] 참고로 들어진 문헌

史料類				韓國書	日本書
史書類	地誌類	法典類	기타		
高麗史 麗史提綱 三國史記 燃藜室記述別集 朝野輯要 東國通鑑	朝鮮八域志 東國輿地勝覽(勝?)覽 東京雜記 松都誌 矯(嶠?)省勝覽 擇里集(志?) 高麗古都徵	東國文獻備考 大典通編 大典會通	高麗圖經 知守齋集 藝海珠塵 梵魚寺事蹟 梵魚寺卍建事蹟 海印寺蹟 海印寺失火蹟 金陵集 大東金石書 大東金石書續	東國歷史 輿載撮要 世界萬國年契 大韓地誌 東國歷代全書(史略?)	朝鮮近世史 朝鮮王國 朝鮮開化史 韓半島

있고 ([그림 1]), 조사 장소는 서울 주변, 개성, 동래와 양산, 경주, 가야산 등이었다. 이 조사한 장소에 대하여 關野는 당시 東京帝國大學 학장이었던 辰野 金吾에게 넓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짧은 조사기간에 가능한 한 많은 유익한 연구자료를 얻기 위해서 옛날부터 문화의 중심지였고 유적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고 序言에 기술하고 있다. 즉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 조선시대 수도인 서울과 그 주변 등 각 시대의 중심지를 조사지로 선정했다.

보고서 간행은 明治37年(1904)이고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學 學術報告 第6號로 발행되었다. 序文에는 明治37年(1904)2월로 날짜가 적혀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의 조사여행이 끝나고 1년 반만에 이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252페이지로 363개의 도판이 게재되어 있다. 序言에 의하면 조사는 急速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실측이나 상세한 寫生圖를 작성할 여유가 없어서 사진을 주로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들 도판은 거의 모두가 사진이고 간단한 스케치가 약간 들어 있을 뿐이다.

또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고로 한 문헌들이 序言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문헌을 정리한 것이 [표1]<sup>10)</sup>이다. 高麗史, 三國史記를 비롯한 史書, 東國輿地勝覽 등 地誌類, 文獻備考 등 法典類, 기타 高麗圖經이나 梵魚寺, 海印寺의 事蹟 등

이 고문헌으로 들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은 없지만 주요한 고문헌을 망라하고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헌이 각 건물의 건립 연대나 유래 등을 밝힌 사료가 되어 있다. 이들 문헌을 참조로 한 엄밀한 고증이 關野의 정밀한 건물 관찰과 더불어 이 한국건축 조사를 정도 높은 연구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대상으로 한 건물의 연대 판정 등은 후에 연구에서 몇 개의 수정이 있지만<sup>11)</sup> 이후의 한국건축 연구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들 關野가 참조한 책들 중에는 [표1]에 있는 것처럼 당시 간행된 몇 권의 한국서 및 일본서도 들어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본서는 뒤에 기술할 『韓國建築調查報告』의 總論에 기술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關野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 중 『朝鮮王國』은 明治29年(1896)에 발행된 책이고 저자는 菊池 謙讓이라는 사람이다. 菊池 謙讓은 國民新聞 특과원이라는 신분으로 渡韓했으며 1895年10月の 乙未事變에 관계되어 廣島에서 구류하는 동안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總論, 地理部, 歷史部, 近世史로 구성되어 있고, 總論에는

…그 衰亡이 歸由한 데를 察하여 이것을 地理, 社會, 歷史의 三點에서 考察하고 半島의 大勢를 卜하려고 欲하여 …

10) 이 중에서 『擇里集』은 『擇里志』의 잘못했음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에는 따로 『擇里志』의 별칭인 『朝鮮八域志』도 들어 있지만 본문에서 通度寺나 海印寺 해설에서 인용된 『擇里集』 내용은 『擇里志』와 똑 같다.

11) 주요한 수정은 圓覺寺石塔 건립 연대가 육개의 기명 등으로 조선시대로 판명된 것, 昌慶宮 明政殿이 墨書銘으로 임진란 후의 재건으로 판명된 것 등이 있다.

라고 하고 있다<sup>12)</sup>. 즉 한국이 쇠망한 원인과 그 장래를 고찰하려고 한 저작이라고 한다.

나머지 3 권은 모두 關野의 조사여행의 바로 전 년인 明治34年(1901)에 발행된 책들이다. 『朝鮮開化史』는 垣屋 盛服이란 사람이 쓴 책이다. 垣屋은 甲申政變 후에 망명한 朴泳孝 등과 같이 1894년에 한국으로 건너간 후 內閣 補佐官이 되어 4년 동안 在韓했다. 그 序文에는

半島の地理, 人種, 文化 및 外交上の事蹟을 記하여 그本然이 將來에 미칠 關係를 알기에는 가치가 있다고 하여 ...

라고 하여 地理篇, 人種篇, 文化篇, 外交篇 등 4편으로 구성된다<sup>13)</sup>. 즉 한국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장래에 미칠 것인가를 알려고 한 저작이라고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日淸戰爭 전후의 일본의 한국 침략과 깊이 관계한 인물이고, 그 침략을 위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계몽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2책에 비하여 『朝鮮近世史』와 『韓半島』는 다소 학술적 색채가 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朝鮮近世史』는 이미 『朝鮮史』란 한국 통사를 明治25年(1892)에 출판<sup>14)</sup>한 林 泰輔란 漢學者에 의한 조선시대의 역사책이다. 林 泰輔는 甲骨文 研究의 개척자로서도 저명한 사람이다. 제1장 「朝鮮의 基業」에서 제10장 「歐美 및 日淸의 關係」까지 10장으로 구성된 사료에 의거하여 연대에 따라 기술된 역사서이다<sup>15)</sup>.

그리고 『韓半島』의 저자는 信夫 淳平이라는 사람이다. 信夫 淳平은 明治27年(1894)에 東京高等商業學校(후의 一橋大學)을 졸업한 후 외무성에 입성하여 明治30年(1897)에 한국의 공사관의 領事官 대리로 渡韓해서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다. 책의 내용은 부산, 경성 등 각지의 개요와 상업, 무역, 재정 등 경제적인 내용, 행정 조직, 일본이나 청나라 등과의 국제관계 등 정치적·외교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각종 통계가 부여되어 있다<sup>16)</sup>. 앞에 3권과 비교하면 당시 한국의 경제, 상

업적인 상황에 대한 기술이 중심으로 된 저작이다.

關野는 이러한 당시의 일본 책들을 참조했는데 특히 『朝鮮王朝』와 『朝鮮開化史』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실행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저작으로써 뒤에 기술한 關野의 한국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 2-3. 당시 일본에서의 한국관과 한국조사

앞에서 기술한 『韓國建築調查報告』의 참고문헌에서 보이는 한국에 대한 이해는 물론 關野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만 『韓國建築調查報告』가 발간된 明治時代 후반의 일본에서의 한국인식도 關野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明治時代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외교상의 과제의 하나이었다. 특히 日淸戰爭을 앞둔 明治20年代에는 한국에 관해서 많이 의논되었고 연구되었다. 「征韓論」에서 시작한 근대 일본의 한국관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개화된 나라로서의 우월적이고 지도적인 지위를 자인하여 아시아 특히 한국을 뒤떨어지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라, 혹은 개화를 지도해야 할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사 분야에서는 봉건제의 유무가 근대화와 관계된다고 하여 봉건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후진적이라고 한 소위 「停滯論」이 주장되었다. 또 역사연구에서도 이른바 「日鮮同祖論」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일체불가분의 근친성과 일본의 지배적인 지위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동양사분야에서는 「滿鮮史」란 연구분야가 설정되어 한국사의 내재적인 발전보다 외부에서의 영향이 강조되었다<sup>17)</sup>.

특히 건축문화분야에서 주목된 점은 「滿鮮史」 연구 중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외래의 영향이 강조된 점이다. 이것은 일본에 원래부터 있었던 한국 문화는 중국문화의 일부이라는 인식과 함께 부여되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은 외래 세력 특히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한국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他律性史觀」이 형성되었다. 한국문화가 일본에 들어 와서

12) 菊池 謙讓 『朝鮮王國』 民友社, 明治29年(1896)

13) 垣屋 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明治34年(1901)

14) 林 泰輔 『朝鮮史(5권)』 吉川 半七, 明治25年(1892)

15) 林 泰輔 『朝鮮近世史 上·下』 吉川 半七, 明治34年(1901)

16) 信夫 淳平 『韓半島』 東京堂書店, 明治34年(1901)

17) 旗田 巍 『日本人の朝鮮觀』 勤草書房, 1969年

일본문화를 발전시킨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한국문화는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실태는 중국문화이며, 한국은 중국문화를 일본에 전한 중계자임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이 「滿鮮史」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明治時代末이며 關野의 한국건축조사부터 이후가 된다. 따라서 「滿鮮史」 연구가 關野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關野의 한국건축조사를 비롯한 明治時代 동양건축사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건축의 계통에 관심이 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伊東의 건축조사는 중국을 넘어서 서역이나 인도로 이르렀다. 이와 같이 關野가 한국건축을 볼 때에도 언제나 중국 및 일본건축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 있었던 이와 같은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關野가 한국건축을 조사한 明治35年(1902)은 시대적으로는 日淸戰爭後로, 한국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가 된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 관한 여러 조사보고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사보고는 日淸戰爭 이전에는 在韓 일본인들에 의한 상업사정이나 어업에 관한 보고와 외무성의 영사관 보고가 중심이었다. 그 후 日淸·日露戰爭 사이의 시기에는 외무성의 영사관 보고에 더하여 농상무성관계의 염업, 농무, 삼림조사가 이루어졌다. 농상무성관계 보고는 아직 적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인의 한국진출을 장려하는 내용이 증가했다(18).

이와 같이 關野가 한국건축을 조사한 明治35年(1902)무렵의 조사보고는 일본의 경제적인 한국진출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日露戰爭後의 한국합방후의 식민지경영을 준비한 조사연구의 시기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 關野의 한국건축 조사를 '일본정부의 한국침략을 위한 예비행동의 일환'이라고 하여 합방후의 문화재 정책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19). 그러나, 이 시기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박한 시기이었으며 합방

후의 문화재 정책을 생각하는 여유가 일본정부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關野의 한국건축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伊東의 중국건축조사 등과 더불어 일본건축의 계통을 동양건축에서 찾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20) 이 시기의 한국조사 가운데에서는 특이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3. 『韓國建築調查報告』에 보이는 한국 건축관

#### 3-1. 關野의 한국관

『韓國建築調查報告』는 緒言, 第一編 總論, 第二編 新羅時代, 第三編 高麗時代, 第四編 朝鮮時代 등 四편으로 구성된다. 먼저 緒言과 第一編 總論에 나타나는 關野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緒言에서는 한국은 '實際에 있어서는 거의 終始一의 獨立國'이고 '그 文化는 물론 漢土의 啓發을 기다린 것이 많겠지만 數千年의 舊國으로 당연히 약간의 特色을 發現한 것이다'(緒言: 『韓國建築調查報告』 항목, 이하 같음)라고 하고 있다. 한국을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의 영향을 크게 보지만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특색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獨立國」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술 중에 한국은 日淸戰爭의 결과 사실상의 獨立國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四, 歷史)고 있어서 청나라와의 중주관계도 의식한 문언인 것 같다(21).

그 다음에 한국건축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건축의 來歷, 變遷, 結果와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세계의 건축사 특히 동양의 건축사연구에 불가결이며 흥미로운 일(緒言)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건축 연구와 동시에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동양건축의 계통에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第一編 總論에서는 건축의 배경이 된

20) 伊東의 제1차 중국건축조사도 義和團事件 때 일본을 포함한 8개국 군대가 점거한 北京 紫禁城 조사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물론 이들 일본인 연구자의 동양건축조사가 일본에 의한 아시아 침략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다.

21)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막기 위해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에서 제1조에 조선을 자주국가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韓祐 著, 平木 實 譯 『韓國通史』 學生社, 昭和51年(1976))

18) 木村 健二 「明治期日本の調査報告書にみる朝鮮認識」(宮嶋博史・金容德 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年)

19) 西山 武彦 前掲論文

地勢, 地質, 氣候, 歷史, 宗教, 社會를 개관하였고, 마지막으로 「形式의 分類」란 항목으로 總論을 매듭지었다. 地勢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感化」를 받은 것, 일본과 중국 사이의 「媒介者」가 된 시기가 있는 것,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고 「開化의 進運을 阻害」받은 것(一, 地勢)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중국문화의 영향, 중국문화를 일본에 媒介, 그리고 한국문화 진전의 뒤떨어짐이라는 인식 등 당시 일본인이 가진 일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關野는 한국건축연구의 전제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그 「韓國社會의 組織은 家族的으로 聚團하고 家族的으로 發達한 것이고 完全한 社會의 形態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公共의인 精神이 缺乏하기 때문에 公共의 社會의인 建築이 發展하지 않았다」(六, 社會)등의 기술이 있다. 이 인식은 關野가 참고로 했던 垣屋 盛服의 「韓國開化史」에서 보여 주는 것<sup>22)</sup>과 같은 인식이며, 이 저작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近世에서의 政治의 腐敗, 族制의 弊害 때문에 … 工藝 進전하지 않고 産業 興하지 않고 國力이 衰耗하였다」(六, 社會)등의 인식은 전술한 바와 같은 당시 일본인이 가진 한국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건축에 관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을 강조하고, 그 이유로 국민의 정신이 「氣宇狹隘이고 高遠雄大의 資質이 부족한」 것(一, 地勢), 지질의 면에서는 「短矮한 松材를 주로 使用」한 것(二, 地質), 한랭한 기후 때문에 「防寒의 構造의 結果」(三, 氣候) 등을 들고 있다. 단 목조건축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을 「東洋建築의 通弊」라고 하고 있다.

또 「國民의 氣質이 事大的이기 때문에 狹義에 있어서 固有한 特色을 가진 建築式이 發達하지 않았고, 虛體를 좋아하고 形式에 拘泥하여 修飾을 좋아했기 때문에 建築도 誠實을 잃어 文飾華縵으로 흐른 弊가 있다」(六, 社會)라고 하는 기술도 있다. 緒言에서 「약간의 固有한 特色을 發現했다」고 한 부분과는 모순되게 보인다. 關野의 한국건축에 대한 이해는 한국건축은 중국건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본질적·구조적인 발전이 아니라, 장

식적인 면에서만 고유한 특색을 나타냈다고 하는 이해라고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形式의 分類」로써 한국 각 시대의 문화는 대응하는 중국의 각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여 혹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변화를 「그대로 韓國 古來의 技術의 形式上에 應用해도 큰 問題는 없다」(七, 形式의 分類)고 하고 있다. 이 인식은 전술한 「他律性史觀」의 인식이며 關野의 한국건축 이해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만 關野를 변호한다면 그의 관심은 일본 건축사 연구에서 나왔으며 일본건축을 歸着點으로 하는 동양건축의 계통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문화와의 관계를 강조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緒言, 總論에는 한국건축연구 목적과 한국건축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기술되어져 있다. 그 내용은 특히 사회 분야에서 당시 일본에서의 한국 인식을 반영한 편견에 찬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조한 「他律性史觀」에 가까운 인식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關野의 관심이 일본건축사 연구에서 나온 동양건축사의 계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23)</sup>.

### 3-2. 신라건축에 대한 평가

신라건축에 관해서는 總說, 都城, 寺院, 陵墓, 自餘遺物, 結論이라는 6장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대체로 그 평가는 절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결론에서는 「新羅時代의 諸技術 發達은 韓國의 精華이고 空前할 뿐만 아니라 絶後라고 칭하기 마땅하다」(六, 結論)고 하고 있다. 그 몇 예를 보면 불국사에서는 涵養樓(泛影樓)의 基柱에서 「當時 技術者의 審美的 眼孔의 卓絶하기에 驚歎」하고 靑雲橋, 石壇, 紫霞門, 步廊, 涵養樓가 「上下에 서로 어울려 最優秀한 形態를 作成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불국사의 「無影塔」(多寶塔)<sup>24)</sup>에 대해서도 「그 權衡의 秀麗함, 意匠의 豊富함, 手工의

23)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다. 「任那」에 관해서도 백제와 같이 시종 일본으로 조공했다고 함(四, 歷史)에 그치고, 당시 역사연구에서 보인 소위 「日鮮同祖論」적인 내용은 이들 기술에는 볼 수 없다.

24) 「韓國建築調査報告」에서 關野는 불국사 석탑 명칭에 관하여 다보탑을 「無影塔」, 삼층석탑을 「多寶塔」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精緻함에 嘆稱을 아낄 수 없고 '當時 技術者의 審美的 眼孔이 높고 鍊熟한 手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三, 寺院). 분황사석탑에 대해서도 완전한 모습이었을 때의 偉觀과 규모의 성대함을 상상(三, 寺院)했으며 太宗武烈王陵의 龜趺에 대해서도 '雄麗의 氣象, 精練의 技工이 韓國에서의 이 種類의 遺物 중에서 最優秀한 것'으로 칭찬하고 있다. 또 瞻星臺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瞻星臺를 필요로 할 정도로 文化가 進歩했으며 石造의 建築도 또 매우 發達했음을 증명할 好資料가 된다'(五, 自餘遺物)고 그 높은 문화와 석조기술의 발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 이외에서도 奉德寺梵鐘이나 기타 불상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石工의 發達」 「銅工의 發達」 「木造建築의 發達」 「自餘遺物の 發達」로 나누어 각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石工에 관해서는 불국사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들어 '當時 石造技術의 進歩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다'(六, 結論)고 절찬하고 있다. 목조건축에 관해서는 遺構가 없기 때문에 언급이 적지만 일본의 法隆寺가 백제 技術로 지어진 사실로 미루어 당시 한국에는 높은 목조건축기술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六, 結論).

이에 대하여 평가가 낮은 예로써는 通度寺의 堂宇의 배치 및 평면이 난잡하고 일정의 규율이 없다고 하여 이 것은 후세의 개변·증축에 의한 것(三, 寺院)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海印寺三重石塔의 相輪이 후세 보수에 의해 '過大·醜陋해졌기 때문에 크게 全體의 權衡을 破壞하고 있다'(三, 寺院)고 했고, 佛國寺 銅造盧舍那佛에 대해서도 근년 拙惡한 보수를 했다(五, 自餘遺物)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다 후세 보수에 대한 비판이고, 신라시대 건축 그 자체에는 거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예를 들자면, 경주 성벽에 대하여 '我邦(일본) 古代의 皇居 혹은 國都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設備를 볼 수 없고 彼此 國勢의 相違를 본다'(二, 都城)고 하였으며 奉德寺梵鐘에 관해서도 일본 奈良時代 梵鐘과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我邦에 있어서도 이에 比儔할 만 한 梵鐘은 없다'(五, 自餘遺物)고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奈良時代 건축과의 비교가 많이 보이며, 위와 같이 한국 건축의 우월성을 인정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我國 古代 文化는 韓國에게 힘입은 점 매우 많고' 한국은 문화예술에서의 일본의 師이고, 일본의 諸藝術은 모두 한국이 전한 것이다(六, 結論)라고 결론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기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佛國寺羅漢殿 앞 석등이나 전술한 奉德寺梵鐘에 대하여 당나라 기술의 영향(三, 寺院 五, 自餘遺物)을 지적하고 太宗武烈王陵의 龜趺를 唐時代 기술의 精華이고 간접적으로 일본 奈良時代 미술과 관계한다(四, 陵墓)고 중국 당나라와의 영향관계를 언급한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신라시대 건축에 대한 평가는 거의 높고 특히 석조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다. 낮게 평가를 한 예는 대부분 후세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다. 또 당시의 일본 건축 혹은 문화에 대해 한국의 優等性을 인정하고, 한국을 일본의 師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기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신라건축에 대한 평가는 전술한 總論에서의 기술과 모순된 내용이 아니지만, 개별의 건축에 대한 關野의 평가는 매우 높아, 關野가 한국 고대 건축을 직접 마주보고 그들을 높이 평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3-3. 고려건축에 대한 평가

고려건축에 대해서도 먼저 總說이 있고 이어져 開城城郭, 王宮, 寺院, 陵墓, 自餘遺物, 結論에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고려건축에 대해서도 신라건축만큼은 아니지만 關野는 거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圓覺寺石塔<sup>25)</sup>에 대해서는 '全體 權衡이 거의 完美이고...意匠의 豊富, 彫刻의 精妙등 매우 驚歎할 만한 것이다'(四, 寺院)고 많은 페이지를 통해 절찬하고 있다. 또 敬天寺石塔에 관해서도 秀麗라고 했으며, 開城七重石塔<sup>26)</sup>도 '全體 權衡 優美하고 安定의 狀 있다'(四, 寺院)고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觀音寺七重石塔도 '全體의 權衡은 매우 아름답고' 優雅라고 하였으며, 興敬寺五重石塔<sup>27)</sup>도 '安

25) 圓覺寺 石塔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이지만, 당시 關野는 『金陵集』 기사와 敬天寺石塔과의 비교에서 고려시대 건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6) 사진에서 현재 서울 경복궁 내에 있는 南敬院 七層石塔으로 추측됨.

정의 狀을 呈하여 權衡도 아름답다'(四, 寺院)고 하고 있다. 이 밖에 開城南大門의 梵鐘<sup>28)</sup>에 대해서도 '形狀豊美이고 裝飾도 優雅'라고 하였고 陶器에 관해서도 그 우수한 작품은 '豊潤鮮美' '形狀秀麗'(六, 自餘遺物)등 절찬하고 있다. 또 건축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문헌에 의해 개성의 번영(二, 開城城郭)이나 왕궁의 규모와 아름다움(三, 王宮), 사원의 장려한 전무후무의 위관(四, 寺院)을 들어 '建築·繪畫·彫刻 등의 技術도 매우 發達·進歩했음은 명백하다'(四, 寺院)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가가 낮은 예로는 開城七重石塔은 '雄大한 氣象'이 부족하고 華藏寺七重石塔<sup>29)</sup>은 '多少 安定의 狀이 적다'(四, 寺院)고 한 부분과 廢公林寺五重石塔<sup>30)</sup>을 '形態技巧 모두 뒤떨어진다'(四, 寺院)고 한 정도이다. 그밖에 문헌에서 개성 번영의 뒤에서 일반 백성들이 '矮陋한 茅屋에 蠢爾 起臥'한 것(二, 開城城郭)이라고 하고, 當代의 불교는 '그 隆盛을 極한 것 같지만...그 內部에선 이미 腐敗의 極에 달했다'(四, 寺院)고 한 기술도 있다. 또 『高麗圖經』 기사를 들어 '宋朝使臣이 出入한 城門 및 通路를 修飾하고 허술함을 숨기려고 했음은 韓人의 氣象을 잘 表한 일'이라고 하였으며(二, 開城城郭), 전술과 같이 明治時代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나타난 예로 생각된다. 아무튼 건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문헌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해석을 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고려건축과 일본건축과의 비교는 거의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의 영향관계에 관해서는 高宗 이전에는 송나라 문화 영향을 받았고 元宗 이후에는 몽고에 服屬했다(一, 總說)고 하여 결론에는 고려의 기술은 신라에서 쌓은 기초 위에 송·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七, 結論)고 하고 있다. 또 절찬한 圓覺寺石塔에 대해서도 원나라 기술의 精華를 전한다(四, 寺院)고 하고, 이 圓覺寺石塔에 덧붙여 敬天寺石塔, 開城南大門의 梵鐘을 본래 원나라의 제작으로 생각해야 할 것(七, 結論)이라고 하고 있다. 즉 關野는 이들 건축을 한

국건축임과 동시에 또한 중국건축의 일부로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 건축에 대해서도 개별건물에 관한 평가를 보면 關野는 그 자신의 미의식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 해석에 있어서는 편견이 드러난 비판적인 면이 보이며,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한국에서의 건축 발전을 중국의 영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인다.

### 3-4. 조선건축에 대한 평가

조선건축에 관한 第四編은 總說, 城郭, 王宮, 學教 및 文廟, 關王廟, 書院, 佛寺, 陵墓, 住宅, 自餘遺物, 當時代建築의 通性, 結論의 十二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第四編은 146페이지, 이 책의 3/5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여러 건축이 남아 있고, 또 그 이전까지 없었던 목조건축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썼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평가 가운데 비판의 중심은 세부 장식에 구조에서 떨어져 장식을 위한 장식이 된다고 한 점이다. 거의 모든 조선시대 건축에 대하여 이런 비판을 하는데, 특히 강하게 비판한 건축은 규모가 크고 세부 장식이 심한 건축이다. 이런 건축에 궁전 정전이 있다. 昌德宮仁政殿에 대해서는 '規模壯大, 裝飾絢爛, 實로 李朝後期の 工巧를 다한 건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構造的 誠實을 잊고 오로지 虛飾을 위해 構造를 한 弊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여, 關野가 비판한 조선시대 후기의 경향을 잘 설명한 건축이라고 하고 있다. 景福宮勤政殿에서도 '輪郭이나 色彩의 權衡·調和에 있어서는 멀리 望見하기에 適當'하지만 '細部に 있어서는 毫末도 洗練·妍秀의 느낌이 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慶會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造構는 壯大하고 裝飾도 奢麗하지만 ...그 細部는 지나치게 纖弱하고 上下層의 連絡은 權衡上, 色彩上 調和를 잃었다'(三, 王宮)고 하고 있다. 또 서울 興仁之門에 대해서도 장중한 느낌은 있지만 안정감이 모자라고 '構造的 眞義를 沒了하여 纖弱華縟의 弊에 빠지기가 가장 심하다'(二, 城郭)고 비판하고 있다.

사원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원 정전 건축의

27) 현재 서울 경복궁 내에 있는 서울 弘濟洞 五層石塔.

28) 演福寺 鐘

29) 이 석탑은 杉山信三 『朝鮮の石塔』(彰國社, 昭和19年(1944))에서는 그 형식으로 조선시대 건립으로 추정되어 있다.

30) 慶尙道阿陽郡安心面東谷의 廢公林寺址에 있는 석탑이라고 있다.



세부의 장식적인 처리를 비판한다. 梵魚寺大雄殿을 ‘그 細部가 纖弱하고 手法이 華縵에 빠진다’고 하고, 海印寺大寂光殿도 ‘規模는 크지만 斗拱은 지나치게 纖弱하고 裝飾이 華縵에 빠지고 … 權衡도 아름답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 重興寺大雄殿<sup>31)</sup>에 관해서도 ‘全體의 形狀權衡은 약간 좋지만 … 構造의 眞義를 沒却하고 헛되이 虛飾에 전념하여’ 보는 사람이 嫌惡의 情을 상기한다(七, 佛寺)고 혹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부 장식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기타 비판으로써 주택에 대한 언급도 있다. 주택의 온돌을 매우 유효한 난방방법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민 주택이 난방 때문에 거실이 狹隘가 되고, 환기·채광·기타 편의가 전부 희생되고 있다고 기능적인 면을 문제시한다. 그리고 ‘比較的 크고 아름다운 貴族 邸宅과 醜陋하고 蕪穢한 貧民의 草屋이 가장 奇한 對照를 呈하다’고 하고, 서민 주택은 ‘그 構造는 거의 原始的’(九, 住宅)이라고 하고 있다. 또 문묘나 서원 등 유교 건축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는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보람 없이 黨爭에 歲月을 보내 文物荒廢하고 産業 興하지 않다’(一, 總說)라는 유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도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關野가 높은 평가를 한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과 비교적 古樣을 유지한 세부이다. 먼저 성곽에서는 서울崇禮門에 관하여 ‘重層의 樓는 莊重森嚴의 느낌을 나타내고 … 더욱 그 細部는 比較的 構造의 誠實을 유지’한다고 했고, 서울昭(彰)義門에 대해서는 ‘權衡이 堅實重固로 이 種類의 建築으로서는 最適當한 性質을 發揮한다’(二, 城郭)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궁전건축으로는 昌慶宮明政殿에 관하여 ‘全體의 形狀이 좋고 各部의 構造가 比較的 誠實하다’고 평가했고, 明政門에 관해서도 斗拱에 비하여 서까래나 平枋이 粗大하다고 비판하면서도 ‘全部의 權衡은 重厚隱靜하고 매우 좋다’고 하고 있다. 景福宮에는 光化門에 대한 평가가 높고 ‘그 崇高雄麗한 壯觀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고 … 全體의 權衡은 매우 아름답다’(三, 王宮)고 하고 있다. 사원건축으로는 栢栗寺大雄殿은 ‘그 構造가 簡勁하고 樸實의 모습을 띠고 裝飾 또 單純하다’고 평가했고, 觀音寺大雄殿도 ‘작지만 構造手法 모두 奇巧를 보이고 매우 高雅하고 불만

한 것이다’(寺)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關野가 특히 높은 평가를 한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한 정원건축이다. 昌德宮의 承華樓은 ‘그 平面이 不規則하고 교묘히 土地의 高低를 利用하면서 여러 建物을 自在롭게 連結하여 高低·長短·大小등이 모두 좋게 適合하고 變化가 縱橫이고 잘 諧調의 妙를 얻어 輕快纖麗하다’고 절찬하고 ‘韓國建築界에 있어서 小品 중에 最上’이라고 하고 있다. 秘苑에 대해서도 ‘苑池林泉의 美’를 높이 평가하고 魚水門의 ‘造構의 纖麗’, 못에 면하여 부채꼴 평면을 가진 小涼亭(觀纜亭)의 ‘輕巧’, 芙蓉亭의 ‘構造手法의 纖巧와 權衡의 美’, 그리고 이들 ‘樓閣亭榭가 樹間에 隱見하여 風景이 대단히 아름답다’(三, 王宮)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대규모건축에 있어서 비판적이었던 장식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이 있다. 즉 東來城廓의 南門에 대해서는 ‘構造의 誠實은 잃었지만 樸實奇古하고, 약간의 穢氣를 띠고 이러한 종류의 建物로서는 도리어 相當한 것 같다’고 하고 있고(二, 城郭), 梵魚寺鐘樓에 대해서도 전체 형상이 좋고 장식이나 조각도 ‘奇拔’ ‘奇古’ ‘古雅’라고 하여 梵魚寺 모든 건물 중에서 대단히 감흥을 끈 건물(七, 寺院)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밖에 梵魚寺曹溪門은 안정감이 부족하지만 의장이 기발하고 약간 웅대한 모습이며, 通度寺大雄殿은 외관에 변화가 있어 감흥을 끈 건축(七, 佛寺)이라고 했으며, 독특한 형태이거나 변화가 있는 건물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건축이 구조적인 의미를 잃고 장식적인 세부만을 많이 사용한 점을 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關野의 조선건축에 대한 비판의 거의 전부가 이一點에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높은 평가는 모습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변화 있는 구성 등 다양하다. 이들 평가는 關野가 조선시대 건축을 직접 마주본 결과이고, 그 울고 그름을 떠나서 關野가 자기 자신의 심미안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총괄이 된 「十一, 當時代建築의 通性」 중의 「一般의 性質」이라는 항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비판

31) 京畿道高陽郡, 1915년 소실

만이 있다. 즉 장대한 건축이 없는 점을 總論에서 기술한 한국인의 기질과 관련시키고, 또 조선시대 건축이 건축의 목숨인 구조적 성질을 잃어 허식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技巧의 疏漫'이 한국건축의 通弊라고 하고 있다. 즉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비판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 부분은 없어서 關野 자신이 건축에 마주 본 때의 평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十二, 結論」의 「當時代 固有한 發展」에서 조선시대의 고유한 발전을 '規模狹小 虛飾華縟'에 쫓긴 것이고 嘆稱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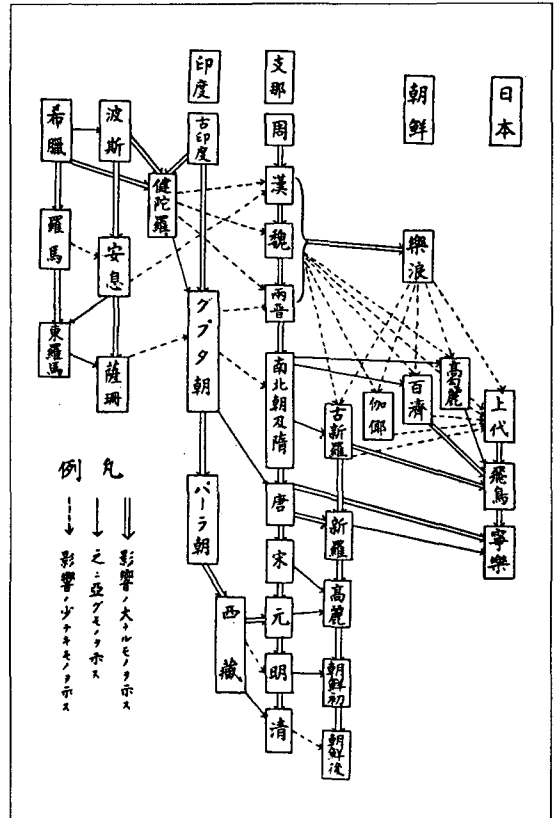
또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조선시대의 '日本建築은 桃山時代の 盛時에 해당하여 그 進歩는 훨씬 앞서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조선시대는 청나라의 영향은 작아졌지만 '所謂 中國의 文化를 한국인은 先天的으로 崇拜하기 때문에 韓國의 文藝가 전혀 中國의 羈絆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건축에 대한 지식이 아직 매우 적지만 '古來 韓國의 技術이 언제나 중국에 대해 母子의 關係를 갖고 있다고 想像해도 큰 틀림은 없다'(十二, 結論)고도 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은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이고, 한국 문화는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明治時代 일본에서의 한국인식 바로 그것이며 關野가 그런 고정관념에 얽매어서 한국건축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논한 개별 건축에 대한 평가와 한국 건축 전체에 대한 평가와의 괴리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4. 關野貞 만년의 저작과의 비교

『韓國建築調查報告』는 關野가 처음에 한국건축과 만나서 지은 저작이다. 그 후 關野는 明治41年(1908) 韓國度支部로부터 古建築調査에 관한 촉탁을 받았고, 그 다음 明治43年(1910)에는 다시 朝鮮總督府에서의 촉탁을 받아 明治42年(1909)부터 수차에 걸친 한국건축조사를 했다<sup>32)</sup>. 그 성과는 大正4年(1915)부터 『朝鮮古蹟圖譜』으로 간행되어 그 후에도 關野는 朝鮮總督府의 寶物古蹟

天然記念物 保存委員 등을 역임하고 한국건축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關野 만년의 한국건축에 관한 저작으로서 『朝鮮美術史』<sup>33)</sup>가 있다. 이 『朝鮮美術史』의 구성을 『韓國建築調查報告』와 비교하면서 그 후의 關野의 연구활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것은 이후의 일본인에 의한 한국건축 연구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된다고도 생각된다.

먼저 『朝鮮美術史』總說에는 地勢, 氣候, 材料, 國民의 慣習 및 氣質의 항목을 들어 한국건축을 태어나게 한 환경에 대한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 『韓國建築調查報告』 第一編의 總論에 비교해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한국관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이 總說 중에서 『韓國建築調查報告』와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은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 그리이스와의 영향관계에



[그림 2] 동양건축 계통도 (『朝鮮美術史』)

32) 平井 聖 前掲論文 및 「故關野博士の略歴」(建築雜誌 60 5, 昭和10年(1935)11月)

33) 關野 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昭和7年(1932)

대해 언급한 점이다([그림 2]).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건축을 연구한 목적 중의 하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건축의 계통을 밝히는 데에 있었는데, 그런 의도에서 진전된 그 후의 연구성과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朝鮮美術史』의 구성을 보면 總論에 이어 第一章 樂浪郡時代, 第二章 高句麗, 第三章 百濟, 第四章 古新羅 및 伽倻諸國, 第五章 新羅統一時代와 고대가 다섯 章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量的으로도 총 283 페이지 분량의 책의 반 정도인 126 페이지를 이들 고대에 관한 다섯 章이 차지하고 있다.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는 고대에 관한 부분이 第二章의 新羅時代뿐이었고 페이지수도 총 252 페이지 중 44 페이지 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크게 증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고대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은 고구려 벽화고분을 비롯한 고분에 관한 지견이 차지하고 있으며 식민지시대전반의 고적 조사의 중심이 이들 고대유적이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sup>34)</sup> 이들 고적조사를 주도한 關野가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고대건축을 높이 평가하고, 또 일본건축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 사실도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먼저 주목되어지는 점은 『韓國建築調查報告』 이후에 새로 조사된 浮石寺無量壽殿과 祖師堂의 양건축과 釋王寺應眞殿의 3동의 고려시대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이 있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浮石寺無量壽殿에 대해서는 많은 페이지가 쓰여 있으며, 그 건축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타 건축에 관해서는 『高麗圖經』의 인용이 줄고, 敬天寺石塔 등 평가가 높은 건축에 대해서만 해설을 하고 있다. 다만 敬天寺石塔이나 演福寺鐘에 관해서는 원나라 공장에 의해 제작된 것이 『韓國建築調查報告』와 같이 강조되고 있다. 즉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자료 증가는 보이지만 『韓國建築調查報告』와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그 후 조사된 고려시대 목조건축에 대한 기술이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상이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건축에 관해서는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기술이 있었지만, 『朝鮮美術史』에서는 고려시대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다. 고대에 관한 부분보다 상당량이 적으며, 또 그 내용의 반 정도는 조각, 회화 등에 관한 기술이다. 내용적으로는 구조형식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이 중심이 되어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보인 것 같은 노골적인 비판은 없다. 한편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높이 평가한 昌德宮承華樓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비원에 대한 기술도 간단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總論 및 結論에서는 조선시대 건축에 대하여 ‘一層의 衰頹를 더하다’ 등 낮은 평가를 하여,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의 비판적인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기술이 적어진 이유의 하나는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關野의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도 있다<sup>35)</sup>.

이상과 같이 이후의 關野의 조사연구 활동의 중심은 고대건축이었고, 이것은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보여진 높은 평가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본·중국 등 동양건축 계통에 대한 관심이 한국 고대건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는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의 낮은 평가를 계승하여 새로운 조사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5. 結論

이상과 같이 關野의 한국건축조사는 일본건축사 연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에 동양건축과의 계통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韓國建築調查報告』는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2개월이란 짧은 기간의 조사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34) 前掲「故關野貞博士の略歴」에 掲載된 關野의 일본건축에 대한 논문도 그 대부분이 고대 건축에 대한 것이며, 고대 건축에 대한 그의 관심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35) 藤島 亥治郎, 杉山 信三 등에 의한 한국 목조건축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 이후가 된다.

각 건축을 조사했고 한국건축의 개요를 어느 정도 밝혔다. 그 조사내용과 연구 그리고 각 시대의 한국건축에 대한 평가는 그 후의 일본인에 의한 한국건축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關野의 마지막 저작 『朝鮮美術史』에서 보이듯이 그 후의 한국건축사 조사연구는 關野가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높은 평가를 한 고대건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을 제외하고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關野는 한국건축을 직접 마주보고 여러 평가를 하고 있다. 신라시대 석조건축에 대해서는 그 우수함을 절찬했고, 고려시대 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건축에 높은 평가를 했다. 또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는 구조의 본질에서 떨어진 장식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의 아름다움, 자연과 조화한 변화 있는 구성 등은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옳고 그름은 떠나서 關野 자신이 한국의 건축과 접하여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緒言이나 總論 및 조선시대 結論에서 보이는 關野의 한국 建築觀은 고대 및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고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한국의 건축은 일본보다 뒤떨어져 불만한 건축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별 건축을 마주했을 때에는 신라시대 건축은 물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건축에 높은 평가를 했다. 그러나 한국건축이라는 전체를 평가하려고 했을 때의 關野는 그 당시 일본이 가지는 한국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 편견에 찬 평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후에 柳宗悅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 예술의 미를 인정하여 그런 예술을 만든 한국인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 사실<sup>36)</sup>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關野 개인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역사연구는 그 연구자가 놓여져 있던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이 『韓國建築調查報告』에서 보여주는 韓國建築觀은 당시 일본이 가졌던 한국 인식이란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 明治25年(1892)
2. 伊東忠太 「法隆寺建築論」 建築雜誌83, 明治26年(1893)
3. 菊池謙讓 『朝鮮王國』 民友社, 明治29年(1896)
4. 垣屋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明治34年(1901)
5. 林泰輔 『朝鮮近世史 上·下』 吉川半七, 明治34年(1901)
6. 信夫淳平 『韓半島』 東京堂書店, 明治34年(1901)
7. 關野貞 『韓國建築調查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明治37年(1904)
8.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昭和7年(1932)
9. 『朝鮮古蹟圖譜』 朝鮮總督府, 大正4年(1915)~昭和10年(1935)
10. 「故關野博士の略歷」 (建築雜誌605, 昭和10年(1935)11月)
11.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昭和19年(1944))
12.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年
13. 稻垣榮三 「建築史研究の發端—伊東忠太と關野貞」 (日本建築學會編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昭和47年(1972), 丸善)
- 36) 4. 平井聖 「東洋建築史の展開・明治期」 (日本建築學會編 前掲書)
15. 韓祐旸著, 平木實譯 『韓國通史』 學生社, 昭和51年(1976))
16. 太田博太郎 『建築史の先達たち』 彰國社, 昭和58年(1983)
17. 西山武彦 「『韓國建築調查報告』の謎」 (西山武彦·伊丹潤監修 『韓國の建築と藝術—覆刻 韓國建築調查報告』 韓國の建築と藝術刊行會, 1988年)
18. 韓三建, 青井哲夫, 布野修司 「1902年から1910年までの關野貞による韓國建築調査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4年9月
19. 木村健二 「明治期日本の調査報告書にみる朝鮮認識」 (宮嶋博史·金容德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年)

36) 旗田 巍 前掲書

# On *Sekino Tadashi's* Viewpoints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Research Report on the Korean Architecture"

Nakanishi, Akira

(Teacher, Technical High School attached t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 Abstract

The "Research report on the Korean architecture(韓國建築調査報告)" is the first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he Korean architecture by Japanese researcher. This paper is about *Sekino Tadashi's* viewpoints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Research report on Korean architecture".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investigation of the Korean architecture by *Sekino Tadashi* was carried out in the concern about the relation between Japanese architecture and Asian architecture, shortly after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Japanese architecture started. And following investigation and research about Korean architecture by *Sekino Tadashi* was mainly focusing on the ancient architecture which he estimated highly in the "Research report on the Korean architecture".

When he observed each architecture himself, he estimated highly the ancient Korean architecture, of course. And also he estimated highly many architecture of the *Koryo* and the *Chosun* period. However, when he estimated Korean architecture as a whole, he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in the prejudice about Korea in Japan of those days. But this is not originate in his individuality. History research reflects the historical situation that the researcher was placed. The viewpoints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Research report on the Korean architecture" was produced by the Korean recognition in Japan of those days.

---

keywords : *Sekino Tadashi*, research of Korean architecture, view of architecture, *Meiji* period

---